

HYUNDAI E&C TODAY

Vol.343
우리는
현대건설
이다

http://news.hdec.kr
2017 / 10 / 30 / Monday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 주소 서울시 중로구 을곡로 75 현대빌딩 / 대표전화 1577-7755 / 신고번호 중로 라00049

〈사보신문〉에서는 테마로 대표 프로젝트를 살펴 보는 “우리는 현대건설이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현대건설의 이름으로 완성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도전 DNA를 일깨우고 강인한 추진력으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45kV 일도-양주 송전선 1992



사우디아라비아 쿠라야연계 1차 송전선 2014



사우디아라비아 마니파 115kV 변전소 및 송배전 2012

사우디아라비아 8200여 km 등
세계 송전시장 신기원 열어

Hyundai E&C lays power lines across the deserts and sea

The Korean government set out to build power generation facilities in an aim to steer clear of power shortages after the Korean War. Above all, the government put its all-out efforts to boost the voltage of power supply. In the 1960s when 22kV and 66kV composed the main line of the national power grid, Hyundai E&C tapped into the power generation market by obtaining a deal to build the 154kV Dongseon power transmission line in 1969. Even when both the client and the contractor did not have experience in related projects, Korea's primary builder developed its own technology and brought the full expertise and competence to the project, gaining a solid footing in the domestic power transmission market. More recently, in 2004, the company conducted the large-scale marine power transmission line project over the sea for the Yeongheung thermal power plant, which is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world.

Hyundai E&C also looked overseas to extend its knowhow. Among many countries, the builder has developed a strong tie with Saudi Arabia. The builder has so far conducted a total of 31 power transmission projects in the country, which resulted in building about 8,200-kilometer power lines in total.



사우디아라비아 380kV 송전선 2008



UAE 400kV 송전선 2011



영흥화력 345kV 송전선 2004

파워 송전으로 바다와 사막을 가른다

전후 턱없이 부족한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설비 증설에 나선 정부가 주력한 또 하나의 분야는 송압사업이었다. 22kV와 66kV급 전압이 주류를 이루던 1960년대, 현대건설은 154kV 동선송전선 공사(1969)를 수주하며 전력사업에 처음 뛰어들었다.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축적기술이 없는 유례없는 프로젝트에 자체 기술 개발과 연구로 공사를 마친 현대건설은 국내 송전선 분야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1970년대 들어서도 현대건설의 시장 주도능력이 이어졌다. 원자력발전소 등 발전설비의 비약적 확충으로 장거리 송전이 시작되며 345kV 초고압 송전설비 분야까지 접수한 것이다. 국내 최초의 초고압 송전선인 신울산 345kV 송전선(1976)을 시작으로 동양 최고 높이인 195m 철탑을 자체 기술로 시공한 일도-양주 송전선(1992)과 세계 최초로 바다를 가른 초대형 해상 송전선 영흥화력 345kV(2004) 등은 현대건설이 써낸 또 한

나의 역사였다. 1992년부터는 765kV 강관철탑 초고압 송전 시대를 열며 전력 분야의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현대건설의 시공 노하우는 해외에까지 이어졌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인연이 깊다. 1976년 신설된 전력청이 의욕적으로 펼친 아시르 전화사업(1980)의 성공적 수행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현대건설은 티하마 전화사업(1985), 세드쿰-리야드/화라스-알카즈를 연결하는 380kV 송전선 공사(1987) 등 현재까지 총 31개, 약 8200km에 이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프로젝트를 도맡아 시공했다. 척박한 사막을 가로지른 은빛 물결의 대장관은 세계 송전선로 시장의 선두주자로 우뚝 선 현대건설이 이뤄낸 쾌거라 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카심 380kV 송전선 1990

Hyundai E&C taking the lead in win-win growth together with subcontractors

A win-win growth seminar for the second half of 2017

Our company is concentrating on enhancing competitiveness along with our subcontractors through a wide range of win-win growth programs.

Our company held the three-day seminar for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aimed to promote win-win growth together with our subcontractors in the Hillstate Gallery from October 17. About 400 officials from infrastructure, building, machinery and electricity teams of our subcontractors participated in the seminar which marked the 7th anniversary this year. The participants took part in the win-win growth programs devel-

oped by Hyundai E&C and discussed effective ways to achieve win-win cooperation during the seminar. This year's seminar consisted of various sessions such as management of voice of customers (VOC) and introduction of Hyundai E&C win-win growth programs; presentation on cleaning work for outsourced companies; a special lecture by Research and Development Division; a special lecture by Hyundai Motor Investment & Securities; and discussion and Q&A session.

Meanwhile, our company announced on October 16 that it would offer the



financial support program designed for subcontractors working together with Hyundai E&C for our overseas projects. As many domestic small-and medium-sized subcontractors have often diffi-

culties in raising funds from local financial companies in foreign countries, the newly introduced program is expected to considerably relieve the financial burden of our subcontractors.

협력사와 동반성장에 앞장...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

하반기 협력사 동반성장 세미나 개최... '상생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 계획

우리 회사가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와 함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10월 17일부터 사흘간



서상훈 구매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 도곡동 '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 '2017 하반기 협력사 동반성장 세미나'를 열었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인프라·건축·기계·전기 등 외주 부문 분야별 협력사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VOC(Voice of Customer) 조치 현황 및 동반성장 프로그램 안내 ▶기술용역 외주 공사 청소 관련 발표 ▶연구개발본부 특강 ▶현대차증권 특강 ▶간담회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우리 회사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상생 협

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총 3차수로 나눠 진행된 세미나를 통해 협력사와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며 "개진된 의견은 향후 협의를 거쳐 실제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지난 16일 해외 동반진출 업체를 대상으로 '상생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하는 이 프로그램은 건설업 최고 수준인 우리 회사의 신용을 은행(스탠다드차타드(SC))에 제공

해 협력사가 자체 조달하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국내 중소 협력사들은 해외 공사 수행 시 현지 금융기관에서 금융 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한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금융비용 부담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회사는 이 프로그램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필요한 내부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올해 안에 아랍에미리트(UAE) 지역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3분기 실적 발표... 내실 경영 순항

우리 회사가 해외 건설경기 부진 속에서도 지속적 재무구조 개선으로 안정적인 경영실적을 달성했다.

우리 회사는 10월 27일 올해 3분기 연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4조2431억원, 영업이익 2811억원, 당기순이익 1111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누적 매출은 12조5906억원, 영업이익은 7915억원, 당기순이익은 3705억원이다.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으로 부채비율은 전년 말보다 21.6%포인트 개선된 123%, 유동비율은 전년 말보다 11%포인트 증가한 181.7%를 기록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탄탄한 재무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수주는 국내 주택사업 수주 증가와 방글라데시의 마타바리 석탄화력발전

소 항만공사, 이란의 강간 석유화학단지, 카타르의 알부스탄 도로공사 등을 수주해 전년 동기 대비 대폭(40.8%) 상승한 16조7288억원을 기록했다.

수주 잔고도 전년 말 대비 6.1% 상승한 69조9263억원을 유지하고 있어 약 3.7년의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3분기 현재 미청구공사 금액도 4308억원이 줄어든 3조1650억원을 기록했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해외 건설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에 초점을 맞춰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실적을 달성했다"며 "향후 최근 수주한 쿠웨이트의 알주르 LNG 터미널 공사, 사우디의 우스마니아 에탄처리시설 회수공사 등의 공적 본격화로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설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2018년 배출허용량 협약

우리 회사가 9월 22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감정원이 주관한 '2018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설정 협약식'에 참석해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협약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5만t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우리 회사는 2015년부터 목표관리제 규제의 대상으로 선정돼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달성해 왔다. 우리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약 7만 1420t(2014~2016년 기준) 선으로, 그간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을 통해 기준치를 하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우리 회사의 선제적·자발적 온



실가스 감축 활동과 기후변화 대응 사례 등을 높이 평가받아 2018년에는 7만 9751t의 배출을 허용받았다"며 "내년에도 무난히 제도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10월 27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기후변화 관련 세계적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인 '2017 CDP Korea'에서 '탄소경영아너스클럽(전체 1위)'을 수상했다.

현대건설 배구단, 개막 '4연승' 질주

현대건설 배구단이 뛰어난 경기력으로 시즌 이후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은 10월 25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



드람 2017-18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홈경기에서 흥국생명 세트스코어 3-0으로 완파했다. V리그 사상 첫 두 여성 감독의 맞대결로 화제를 모은 이번 경기에서 현대건설 이도희 감독이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에게 판정승을 거두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한편 현대건설 배구단은 사흘 후 열린 28일 GS칼텍스전에서도 완승을 거두며 초반 상승세에 박차를 가했다.

'힐스테이트 클래식' 11월 초 분양

우리 회사가 오는 11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40-16번지 일대 신길뉴타운 9구역에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 클래식'을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클래식은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14개 동 규모로, 총 1476세대(전용면적 39~114㎡) 중 701세대(전용면적 42~114㎡)가 일반 분양된다. 전체 세대의 98%가 전용면적 84㎡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단지명인 힐스테이트 클래식은 'classy(고급의, 세련된)'와 '안(편안)'의 조합으로 신길뉴타운 내 중심으



로 꼽히는 9구역의 뛰어난 입지와 현대건설의 특화설계가 만난 고급 주거단지를 상징한다. 또한 7호선 신공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신길뉴타운 최종심 입지를 자랑하는 만큼 생활편의시설을 반경 2km 내에서 가깝게 누릴 수 있다.

문의 02-832-6696

그림사 소식

현대자동차그룹,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6기 시상식 개최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10월 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임서정 고용



노동부 실장, 유영학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6기의 시상식 및 사업발표회를 개최했다.

현대차그룹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예산과 본선을 실시해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25개의 창업팀을 선정했다. 각 팀은 앞으로 24개월 동안 최고 1억원의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창업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유영학 이사장은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청년 및 사회 취약계층의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컬러풀 코나 주말 시승 이벤트

현대자동차가 11월 7일까지 코나 렌탈 이벤트 'Colorful KONA(컬러풀 코나) 주말 시승 이벤트'의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시승 이벤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3차수로 600명의 고객에게 코나의 상품성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매주 주말을 포함해 3박4일간 시승차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가를 원하는 고객(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함)은 차수별 응모 마감일(1차 10월 25일, 2차 10월 31일, 3차 11월 7일)까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www.hyundai.com)에 시승 희망 일정, 신청 사연, 차량 인수 지점 등을 입력해 응모하면 된다.

현장·부서 소식

건축사업본부, 물품 기증 캠페인 펼쳐



건축사업본부가 10월 16일부터 사흘간 본사와 현장에서 '굿윌스토어(Goodwill Store)'와 함께 물품 기증 캠페인을 실시했다.

총 309명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사회공헌 활동에는 의류, 잡화,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7682여 점(물품가액 1905만9000원)이 수거됐다. 또한 물품 기증뿐 아니라 직원 28명이 자원봉사에 나서 물품 수거, 포장, 탑재 적재 작업에도 참여했다.

굿윌스토어는 소매유통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결합한 생활생활용품 소매판매점으로, 기증된 물품들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분류, 수선, 태그 부착, 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건축사업본부는 지난 3월에도 본사 27개 팀(175명), 현장 22개 팀(121명)이 참여해 6635개 물품을 기증해 1851만9000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다.

건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물품 기증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을 주는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 형태에서 탈피해 소외계층에게 근로를 통한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Shows featuring foreigners offer local viewers a new perspective

Oct 24

Foreign friends are hot commodities on local television. Since JTBC launched the program “Non-Summit” in 2014, audiences have been increasingly drawn to foreigners appearing on television. The show, which aims to provide diverse perspectives on social issues from Korean-speaking foreigners, has produced a number of foreign celebrities in the country. Seizing the opportunity, cable channel MBC every1 created the program, “Welcome, First Time in Korea?” It centers on foreigners visiting Korea for the first time. Since July, the show’s popularity has skyrocketed, hitting a 3.5 percent viewership rate - MBC every1’s highest in 10 years.

Seeing the show’s popularity, other channels have started to produce their own foreigner-centered shows, like the upcoming SBS show “The Travel-

er’s Guide to My Room,” and Olive’s “Seoul Mate.” JTBC launched “My Foreign Friend” earlier this month. Showing foreigners interacting with Korea for the first time provides viewers with a new perspective of Korean culture and also offers a chance to learn about foreign cultures. “Even when visiting the same location, they had different perspectives depending on their nationality, gender and age,” said Mun Sang-don, the producer of “Welcome, First Time in Korea?”

“The Traveler’s Guide to My Room” fulfills viewers’ curiosity about what it would be like to live in another country. Baek Si-won, the show’s producer, got the idea for a show from a trip abroad that she took two years ago. “Feeling unsure about how to raise my kid, I traveled to Denmark and Finland. There, my Airbnb host introduced me to the kindergarten



Two Friends of a German Celebrity in Korea appeared on “Welcome, First Time in Korea?”

her kid went to as well as several working moms that were around the same age. Thanks to her help, I was able to learn a lot from the trip,” she said.

JTBC’s “My Foreign Friend” and Olive’s “Seoul Mate” focus on relationships with foreigners. For example, comedian-entertainer Lee Soogeun and his son become friends with a family from Bhutan, while on “Seoul

Mate,” foreigners have the opportunity to befriend Korean celebrities.

“These shows prompt viewers to find something new that they might have missed in their routines. By watching the programs, viewers can not only experience traveling second-hand, but can also learn to sympathize with what they’re not used to,” said culture critic Jeong Deokhyeon.
 By KOREA JOONGANG DAILY

Group News

Hyundai Motor Group Reveals Next-Generation Powertrain Strategy

Hyundai Motor Group has outlined its future powertrain development strategy, at its International Powertrain Conference in Korea on Oct 24. More than 1,200 engineers and academics from world leading powertrain companies participated in the two-day event, which featured presentations exploring the core theme, “Knock the Limit of Powertrain Technologies: To Enhance Value for Customers.”



At the conference, Hyundai Motor Group displayed the first four engines and two transmissions from its forthcoming line-up of new ‘Smart Stream’ powertrains.

2017 Hyundai World Archery Championships Opens In Mexico City

Hyundai Motor has achieved a successful tournament as a title sponsor of the 2017 World Archery Championships that commenced on Oct 15 in Mexico City. A total of 376 world-class archers from 61 countries around the world competed.



The Hyundai Fan Park beside the venue in Zocalo Square, Mexico City, opened on Oct 21-22 to relay all the action from the final stages of the tournament. Visitors to the Fan Park could experience the sport first-hand, with an archery clinic and demonstrations from members of the Mexico archery team, including Linda Ochoa and Juan Rene Serrano.

Kospi cracks 2,500 ceiling for very first time

Oct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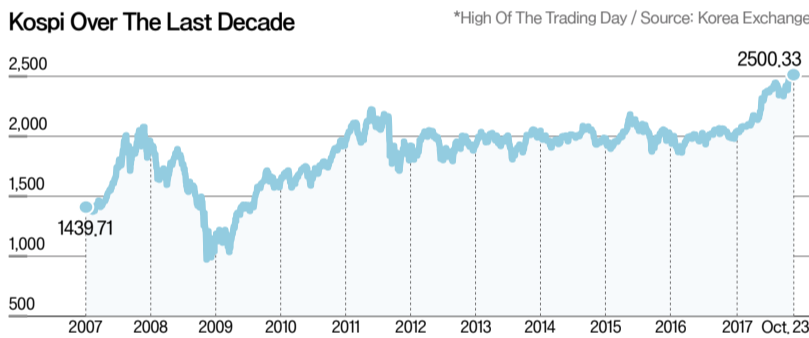
The benchmark Kospi reached a fresh milestone on Oct 23, topping the 2,500 mark in intraday trading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 Kospi hit an all-time high of 2,500.3 less than 3 minutes after the opening as investors bet on sound earnings in the third quarter and a cheerful investment sentiment from record high market indexes in the United States.

U.S. stock indices including the Dow, the S&P 500 and the Nasdaq hit new clos-

ing highs after the U.S. Senate passed a budget resolution containing tax cuts. Taking a cue from U.S. markets, the Kospi ended at 2,490.05, another record close.

“The underlying trigger lies in expectations for strong corporate earnings,” said Chang Hee-jong, an analyst at HI Investment & Securities. “But it was also helped by the well-performing U.S. markets,” he said.

The main driver for corporate earn-



ings was Samsung Electronics, a market bellwether that forecast another record-breaking performance for the third quarter. Aside from the corporate sector, Korea’s economy is doing well with robust exports and improved con-

sumption. The Bank of Korea made an upward revision of its forecast for the economy’s growth in 2017 last week, raising the rate to 3 percent from a previous 2.8 percent.

By KOREA JOONGANG DAILY

Hyundai E&C Today’s Online Event: Tune in 2 U

What is the most popular sport in your country?

Hyundai E&C Today has been holding the “Tune in 2 U” event designed for our global employees of all nationalities to get an understanding of what they think and give them a chance to feel closer to each other. The topic of the 343rd edition is “The most popular sport in your country.”

We received many e-mails all over the world between October 16-23. We would like to thank all employees for sharing their stories. Looking forward to hearing more opinion from you next time, we are going to introduce best 3 comments.



Amit Kumar Jaiswal
 (Dubai Eye Project, UAE)

Cricket is by far the most popular sport in India. The Board of Control for Cricket in India is a global leader when it comes to profits in the world of cricket, India has produced some legendary cricketers like Kapil Dev, Sunil Gavaskar, Rahul Dravid and Sachin Tendulkar. India has won all of the ICC (International Cricket Council) Tournaments including ODI (One Day International)’s World Cup in 1983 and 2011. Although cricket is the most famous sport in India, Kabaddi, an indigenous sport, is also popular in rural areas. I hope you try playing these!



Tarek Khatib
 (Abu Dhabi Branch Office, UAE)

In Jordan, where I am from, football is predominantly the most famous sport. It is enjoyed by most people, both on the national (Jordanian National team and Jordanian League) and the international (World Cup, UEFA European Championship, UEFA Champions League, etc.) levels. Furthermore, football matches between popular teams can often be considered as events. For example, if there is a game of FC Barcelona against Real Madrid, many football fans in Jordan gather in friends’ houses, restaurants or cafes to enjoy watching the match with a group of friends in a nice and lively atmosp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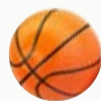
Another sport, which has started to gain popularity in Jordan even if on a smaller scale compared to football, is basketball. One of the reasons for the growing popularity of basketball in Jordan is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Jordanian basketball players playing around the world. These sports allow many people to stay in touch with each other and give them joy.



Destry Roman C. Limbag
 (EPCC of Al-Zour LNG Import Project, Kuwait)

“Sepak Takraw,” also known as “Sipa” in the Philippines, is our traditional sport, but Filipinos just love basketball. Although it’s not the country’s national sport, it is the most popular sport in the country. You can find a basketball court almost everywhere, Filipinos are short in height, but this does not prevent them from enjoying playing basketball and enhancing their skills. Girls and boys of all ages know who Michael Jordan is, how good Kobe Bryant is, how powerful LeBron James is, and how terrific Stephen Curry is. This enthusiasm for basketball might be because we were colonized by Americans.

Now, the Philippines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top basketball playing country not only in Asia but in the world, being ranked top 30 as per FIBA rankings of 2017. As more and more Filipinos grow taller, their basketball skills have improved tremendously. As the sport continues to develop, sooner or later, Filipinos dream of competing in the Olympics will come into reality.



산업 전반에 걸쳐 '재생'이라는 단어가 화두로 떠오른 요즘, 단순히 낡고 버려진 것을 다시 쓰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국내외 업사이클링 건축의 우수 사례들을 통해 옛 것과 새 것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새로운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해 조명해본다. 글=박지일 건축전문기자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43
2017/10/30/Monday



1 서울로 7017의 야경. 서울의 도시를 가로지르며 바라보는 서울의 풍경은 이곳의 백미다. [출처: 서울시] 2 덴마크의 업사이클링 하우스. 재활용한 자재로 만들어졌지만 신축 건물 못지않게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한다. [출처: World Architects Awards]

업사이클링(Upcycling) 건축

오래된 흥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

낡음과 새것, 상충되는 두 가치의 조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화제가 된 서울 성동구 일대는 과학·인쇄·공장·공방 등이 모여 과거 1960년대부터 산업 경제를 선도해 왔지만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쇠퇴해 슬럼화된 대표적인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세련된 상업 시설과 문화 공간,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잇따라 들어서고 뒤이어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비롯해 젊은 스타트업 벤처 사무실이 속속 이주하며 소위 '핫'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이곳 성수동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공간들은 대부분 새로 지은 신축 건물이나 기존 오래되고 노후한 건물의 내부를 새롭게 바꿔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쓰임이 퇴색한 건물에 새로운 기능을 적용한 업사이클링 사례다.

업사이클링은 버려지거나 오래된 재료·물건·공간 등을 새롭게 디자인하거나 활용 방법을 바꿔 더 높은 의미와 가치를 더해(Upgrade) 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 속에서 쓸모없어진 것을 수선해 재사용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며,

단순히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이라는 기조 아래 산업 전반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얼핏 디자인 업계가 선도하는 트렌드처럼 보이지만 이미 건축 분야에서는 주된 이슈 중 하나로,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져왔다. 르네상스 시대 찬란한 역사가 끝나고 몰락한 로마제국 사람들은 당시 건축물의 폐자재를 이용해 자신들의 집을 신축했고, 중국에서도 만리장성의 벽돌을 빼내어 집을 짓는 사람들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필요 없어지거나 쓰임이 달라진 재료들을 활용해 새로운 건축물을 재창조하는 업사이클링 건축은 단순히 재생의 단계를 넘어 '시간'이라는 특정 요소와 만나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먼지 쌓인 건축물이 새로운 옷을 입다

우리나라의 경우 업사이클링 건축에 대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 최근 에야 도시 재생과 연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

행 중이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십에서 수백 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을 잘 보존해 업사이클링한 다양한 사례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역사적 건물들을 보존하고 도시의 미관을 고려해 신축 건물을 짓는 것을 극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오래된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현대식 건물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업사이클링 디자인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덴마크의 'Lendager Arkitekter'가 설계한 업사이클링 주택은 재활용 자재만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다. 골조는 버려진 선적용 컨테이너를 재활용했고, 외관의 패널은 신문지를 모아 열처리를 통해 재활용한 과립 종이로 만들어졌다. 내부는 재활용 석고로 만든 건식 벽체이고, 바닥은 버려진 와인 코르크의 찌꺼기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LCA(오염물질과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평가에서 무려 86%의 Co₂를 절감했다고 밝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FREITAG은 방수천, 자동차의 안전벨트, 폐자전지의 고무 등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 가방을 제조하는 업사이클링의 대표적인 브랜드다. FREITAG의 플래그십 스토어 역시 기업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컨테이너 박스 27개를 수직으로 쌓아 만든 26m 높이의 타워로, 오직 폐기된 선적용 컨테이너만 사용해 중첩해서 쌓은 후 볼트로 고정했다. '분재 고층 건물(Bonsai Skyscraper)'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났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인근의 NDSM(New Dock activities Stories Members)은 업사이클링 공간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선소였으나 1980년대 들어 버려진 이 공간은 지역 예술인의 손에 의해 재탄생했다. 버려진 컨테이너는 레스토랑으로, 방치된 산업 크레인도 50m 높이 조망의 호텔로 변신했다. 20여 년이 지난 현재, NDSM은 암스테르담을 넘어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다.

경기도 화성시의 소담미술관은 버려진 점철방을 건축과 디자인 전문 미술관으로 탈바꿈시켜 2017 대한민국 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다. 5년 넘게 방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대로 삼아 수많은 기둥과 벽체들로 공간이 중첩되는 이색적인 미술관을 완성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버려진 땅이었던 이곳은 이제 지역민들의 참여를 스스로 이끌어내며 건축을 넘어 도시가 살고 있는 문화의식의 부재를 해결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

서울 강남의 SJ 콘스트할레는 국내에서 업사이클링 건축을 확산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8개의 컨테이너를 중첩해 쌓고 1층부터 4층까지 막힘없는 동선을 구성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아시아 최초의 컨테이너 건물로 전시, 공연, 브랜드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진행된다. 콘스트할레를 비롯해 광진구의 커먼 그라운드 등을 디자인한 'URBANTAINER'는 컨테이너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건축의 선두주자다.

도시적인 측면의 업사이클링은 서울시의 '서울로 7017' 프로젝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지난 7월 개관한 서울로 7017은 1970년도에 지어진 서울역 일대 고가도로를 서울 시민들의 공원 및 보행로로 재활용한 길이다. 보통 고가도로들이 안전과 미관을 이유로 철거되는 것과 달리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크고 작은 비탄도 있지만 해외에서는 도시 재생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숲 '언더스탠드 에비뉴', 성북구 '파이빌99', 인천의 '문화창작지대'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건축은 어느덧 사람들로 북적대는 도심의 랜드마크로 변모했다.

업사이클링 건축의 새로운 부가가치

낡음과 새것, 이 두 가지 역설적인 단어들 사이 공존하는 업사이클링은 단순히 건축 분야만이 아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위의 사례들을 통해 증명한다. 많은 지자체도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양산업의 폐쇄 시설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설로 업사이클링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은 대부분 정부 차원의 개입이 아닌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개발에 익숙한 풍토에서 옛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해석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사이클링 건축들이 하나둘 모이다 보면 도시의 집합적인 기억과 문화, 역사가 농축된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어 도시 재생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단순히 오래되어 부수고, 새로 짓고 철거와 신축을 반복하는 부동산적 가치로만 건축을 평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공간이 가지는 과거의 향수는 건축이 가지는 새로운 가치다. 낡고 쓸모없어진 건물의 역사를 존중하고 새로운 가치를 입혀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당장 눈앞의 이익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더 많은 건축물이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 옷을 입고 멋지게 변신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재생 단계를 넘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



3 네덜란드의 NDSM, 과거 버려진 조선소 건물을 업사이클링해 레스토랑과 호텔로 재탄생했다. 4 낡은 컨테이너를 활용한 스위스 FREITAG사의 플래그십 스토어. 5 경기도 화성시 소담미술관. '콘크리트 뼈대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불린다. 6 서울 강남의 SJ 콘스트할레 전경. 2009년 완공돼 비교적 오랜 시간이 지난 건물임에도 아직까지도 가장 눈에 띄는 건축물 중 하나다. [출처: SJ 콘스트할레 홈페이지]

'2017~2018도드람V-리그' 개막을 맞아 현대건설 배구단을 응원하는 사우 3인을 만났다. "건설사 중 유일하게 스포츠 팀을 가지고 있어 자부심과 애정이 생긴다"고 말하는 사우들과의 배구 수다. 글=박현희/사진=이슬기

현대건설 배구단 응원하는 사우 3인

"2017~2018 V리그 우승? 당연히 현대건설이죠!"



왼쪽부터 한명석 대리(인프라환경개발사업실), 고영조 대리(플랜트수행실), 김선규 사원(에너지환경연구개발실). 사인볼과 양호진 선수의 유니폼, 응원도구를 들고 환한 미소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언제 처음 현대건설 배구단의 경기를 봤나요. 팬이 된 계기도 궁금해요.

한명석 대리(이하 한) 2014년 7월에 입사해 그해 가을, 난생처음으로 여자배구 경기를 봤어요. 당시 연구개발본부로 입사했는데 본부 전 직원이 배구장에 가서 응원했던 게 무척 인상적이었죠.

고영조 대리(이하 고) 저 역시 입사 전에는 남자배구만 봤지만, 입사 후 현대건설 배구단의 팬이 됐어요. 배구의 매력은 다른 스포츠보다 상대적으로 경기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선수의 열기가 응원석에 전해지고, 응원하는 팬들의 열기도 선수들에게 전해지니까 더욱 박진감이 느껴져요.

우리 회사는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스포츠팀을 갖고 있어요.

고 회사 소속의 스포츠팀이 있다. 그것도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다'는 사실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저에게 큰 자부심이에요. 우리 회사 직원이라면 시즌에 두세 번 배구 경기를 관람할 기회가 있잖아요. 경기장이 떠나갈 정도로 힘차게 응원해요.

한 저 역시 무척 자랑스러워요. 스포츠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전 직원이 '현대건설 배구단 우승'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응원하잖

아요. 경기장에 응원하러 간 날 우리 팀이 이기면 함께 온 동료들과 크게 기뻐해요. 동료애도 자연히 생기게 되죠.

김선규 사원(이하 김)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일단 경기장에 도착하면 지금까지 받은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린다는 생각으로 신나게 응원해요. 목청을 높이며 응원하다 보면 어느새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죠.

인상 깊었던 경기가 있나요?

한 2014~2015 V리그에서 폴리 선수가 맹활약을 펼칠 때예요. 2-2 접전에서 마지막 세트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폴리 선수가 36점을 내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여자배구계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며 환호성을 질렀던 게 기억나네요.
고 2015~2016 V리그 챔피언결정전 3차전이 '인생 경기'예요. 우리 배구단이 IBK기업은행과의 대결에서 3-0으로 승리하며 사상 첫 무실세트이자 5년 만에 프로배구 챔피언결정전 정상에 올랐거든요. 그날 경기를 헬스장에서 봤는데, 승리의 순간 주먹을 불끈 쥐었던 게 떠올라요.

김 홈경기장에 가면 선수들이 관중을 향해 사인볼을 날려 주잖아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 사인볼이 갖고 싶어 난리(?)를 쳤어요. 자리에

일어나 '나 좀 보라'며 몸을 흔들었는데, 한 선수가 공을 뺏 쳐서 저에게 정확히 날려 주더군요. 받은 공은 자녀와 함께 온 팀원에게 드렸죠. 개인적으로 그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우리 회사 직원에게는 수원 홈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경기를 좀 더 재미있게 즐기 위한 팀이 있다면?

한 가끔 세 살, 두 살배기 아이 들을 경기장에 데려가요. 아내도 즐거워하고, 아이들도 경기장 분위기에 매료돼 무척 신나하죠. 가족과 함께 온 다른 선배들과 간식을 나눠먹는 것도 쏠쏠한 재미예요.
김 일단 맥주 한두 캔으로 몸을 예열(?)시켜야 합니다. 물론 과음은 금물이죠. 그리고 소리를 내줘야 해요. 액션만 해선 안 됩니다. 치어리더의 지시에 맞춰 힘차게 노래와 율동도 해야 하죠.

고 마음 맞는 동기들과 함께 보는 것을 추천해요. 신입사원 입사교육이 끝나면 각 부서·본부로 흩어져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동기들을 배구장에서 만나면 무척 반갑고, 시간가는 줄도 몰라요.

이번 시즌 현대건설 배구단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김 현대건설 배구단은 젊은 선수의 스피드와 체력, 경험 많은 선수의 노련함까지 두루 갖췄어요. 20대 초반부터 30대 중후반까지 연령대가 다양한 것도 큰 장점이라 생각하죠.

한 우리 배구단에는 전북 현대 모터스 이동국 선수처럼 능력 좋은 베테랑들이 있어요. 황연주·김세영 선수도 여전히 든든하고, 애이스 양호진도 있죠.

고 공격 루트가 다양해진 것 같아요. 황민경을 자유계약선수(F·A)로 영입했고, 라이트 황연주, 세터 이다영, 센터 양호

진과 김세영 등 득점 루트가 다양해졌죠. 다른 팀 경기를 보면 '몰빵 배구'라고 용병 의존도가 아주 높는데 우리 회사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선수가 평균 이상의 실력을 갖췄죠. 이도희 감독이 세터 출신이잖아요. 이번 시즌 세터 이다영을 잘 키워낼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시즌 초반 이다영 선수가 잘 해주고 있고요.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누구인가요?

한 항상 황연주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베테랑이 잘해주면 역시 젊은 선수들이 따라가니까요. 강스파이크를 때릴 때뿐 아니라 매 시즌 발전하는 모습도 참 멋진 것 같아요.

김 기대되는 선수는 엘리자베스이고요.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리베로 김연걸 선수입니다. 민첩한데 다 공격과 수비 모두를 잘하는 모습에 팬이 됐습니다.

고 세터 이다영 선수가 가장 기대됩니다. 배구는 흔히 '세터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시즌에는 백업 세터가 없어 이다영 선수의 어깨가 무거울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에도 멋진 활약 보여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V리그가 개막했습니다. 현대건설 배구단 선수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는.

한 당연히 잘할 것이라 믿습니다. 3-0 무실세트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김 새로운 감독님 밑에서 새로운 체제로 시작하는 시즌입니다. 많은 것이 바뀐 만큼 이번 시즌 반드시 우승의 감격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 열심히 훈련해온 만큼 다치지 말고 무사히 시즌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통합 우승을 목표로 언제나 좋은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SPIKE YOUR HEART' 우승을 목표로 확 달라지다



현대건설 배구단 '이도희호'가 순항 중이다. 현대건설 배구단은 지난 25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홈 개막전에서 흥국생명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3-0 완승을 거뒀다. 개막전 이후 3연승이다. 각종 매체는 "완벽한 경기 운영"이라고 평했고, 이날 이도희 감독은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번 시즌 현대건설 배구단은 그야말로 많은 것이 달라졌다. 스타플레이어(세터) 출신 이도희 감독을 새로운 사람탑으로 낙점해 팀 분위기에 변화를 줬다. 여기에 외국인 용병으로 서브 리시브가 가능한 윙스파이커 엘리자베스 캠벨과 민첩하고 수비가 뛰어난 황민경을 영입했다. 이다영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이도희 감독이 이번 시즌 이다영을 집중 지도한 이유다. 지난 7월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허리를 다쳤던 양호진의 건강함 복귀는 이번 시즌 우리 배구단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한편 현대건설 배구단은 구단 BI(Brand Identity)와 유니폼을 전면 교체해 신선함을 더하고 있다. 새 엠블럼은 방패 모양을 바탕으로 하단에는 승리를 표현하는 V(Victory) 문양을 새겼다. 유니폼 역시 전체적으로 심플하면서 팀명인 힐스테이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작됐다. 네 크라인과 허리 밴드에 구단 컬러인 다크 네이비와 라임그린 컬러를 사용해 전통성도 살렸다. 이번 시즌에는 마스코트도 생겼다. 발달하고 생기 넘치는 선수들을 모티브로 삼은 캐릭터는 귀엽고 친근한 외모가 특징이다. 변화가 많아서인지 팬들의 기대 또한 어느 시즌보다 높다. 이번 시즌, 시적이 좋은 만큼 끝까지 승리의 기운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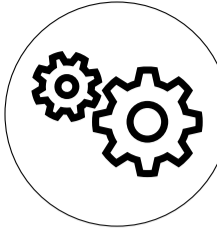
현대건설 배구단 새로운 마스코트. 헌트, 힐리, 테리(위부터).

2017년 현대건설 배구단 홈경기 일정

Table with 2 columns: Date and Opponent. Rows include 11.8(수) GS칼텍스, 11.14(화) 한국도로공사, 11.19(일) 흥국생명, 11.22(수) IBK기업은행, 11.26(일) KGC인삼공사, 12.5(화) IBK기업은행, 12.23(토)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 배구단 선수들.



제주도의 관광지지도가 변화하고 있다. 우리 회사가 시공한 제주 신화역사공원 R지구 콘도와 빌라가 지난 4월 문을 연 데 이어 '제주신화테마파크'도 9월 30일에 그랜드 오픈했다. 전례가 없던 테마파크 공사라는 어려움을 딛고 준공을 이룬 직원들의 얼굴에는 '현대건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엿보였다. 글=김보나

Jeju's biggest theme park serves as the new driving force to tourism

Hyundai E&C received the Jeju Shinhwa Theme Park project from L.Landing Jeju Development Corporation, a Jeju Island-based joint venture co-financed by Hong Kong's Landing Holding Group, in 2016 to construct a condominium, villa, theme park, training center and water park within Plot-R. As the leading contractor, Hyundai E&C began the construction in April 2016 and obtained an approval for the temporary opening of the park in July this year. The new theme park was open to the public on September 30.

The main concept of the Jeju Shinhwa Theme Park is to bring to life myths and legends around the world including Jeju Island. A total of 30 buildings of up to two stories aboveground and one basement level boasting a total floor area of about 30,000 square meters offer a variety of attractions themed after myths and legends around the globe. The park was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TUBA by featuring its famous 3D animated characters such as Larva, Wingle Bear, Rotary Park and Oscar's Oasis.

Huge attention was already paid to

the Jeju Shinhwa Theme Park because the island's largest theme park was expected to reinvigorate the tourism industry of the largest island off the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As the park is the first theme park project for Korea's primary builder to perform, the company focused its full capabilities on the project. With the help of a consulting firm specialized in theme park construction, the builder conducted three distinctly different zones of construction including ride attractions, themed structures and general buildings.

Most of rides were manufactured overseas where local vendors are based in, and then assembled at the construction site. The key to the process was to coordinate various opinions regarding the designing, manufacturing, transportation and supervision of installation of the rides with the overseas partners. To this end, the client, Quality Control Department and Construction Manager made visits to the during and after the manufac-

turing process in order to thoroughly inspect the quality of the rides.

Myth-themed structures modeled after TUBA's characters were manufactured at a domestic factory and transported to the island. A U.S. art director who had worked for the Walt Disney World Resort was dedicated to the project at the construction site for about nine months as design manager and played a big role in coordinating with the client.

The biggest challenge for the project was Typhoon Chaba which battered the resort island in October 2016. A lot of structures including rebars, cast and scaffolds were toppled over by the powerful typhoon. Thanks to a concerted, united effort of workers at the construction site to recover from the damage, the construction site could restore the flood damage in 10 days, much faster than had previously been thought.

The construction site also showed great teamwork with regard to safety management. As a result of the operation of safety-related programs for safety management and win-win cooperation, the construction site recorded 2 million man-hours of zero accident.



1 신화테마파크로 들어서는 정문. 투바엔 캐릭터들이 관람객을 맞는다. 2 15개의 놀이기구와 YG Town이 들어선 신화테마파크 정경. 3 지드 레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한 YG Town 내 GD카페. 4 제주 특산물, 한라봉의 모양을 본뜬 테마파크 내 건축물. 5 정문을 지나 테마파크로 향하는 입구. 6 국내 최초로 도입된 신개념 놀이기구 '오스카 스핀 앤 범프'.



제주 최대의 테마파크 건설, 관광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다

국내 최고 관광지의 명성을 이룰 새로운 메카

한적하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이 최근 들쭉이 있다. 리조트와 호텔, 테마파크, 워터파크, 쇼펍센터, 카지노 등이 포합된 복합 리조트 '제주신화월드'가 들어서며 관광객들의 주목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흥분법인인 란딩인내셔널의 자회사, 란딩제주개발(주)이 지난해 발주한 제주신화월드 프로젝트에서 우리 회사는 제주신화역사공원 R지구 콘도와 빌라, 테마파크, 트레이닝센터, 워터파크의 수주를 따냈다. 2016년 4월 29일 컨소시엄 주관사에서 제주신화테마파크 공사에 착수했고, 공사 약 1년3개월 만인 7월 31일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9월 30일 그랜드 오픈했다.

용했다. 총 15개의 놀이기구를 갖춘 세계의 테마존 이름도 '로타리파크' '오스카 뉴월드' '라바 어드벤처 빌리지'다. 가장 이목을 끄는 놀이기구는 '오스카 스핀 앤 범프'. 원형의 기구가 회전하며 동시에 레일 위를 바이칼처럼 움직이는데,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놀이기구 형식이다. 어트랙션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관람 및 공연도 즐길 수 있다. 최첨단 4D 돔 시어터에서는 '로타리파크' 애니메이션을, 센트럴 스테이지에서는 하루 세 번 제주의 신화를 소개하는 '미스틱 아일랜드' 공연을 선보인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일궈낸 협업

제주신화테마파크는 공사 초기부터 제주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라는 사실로 많은 이의 주목을 받았다. 우리 회사도 첫 테마파크 현장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다. 공사는 전반에 걸쳐 테마파크 건설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 ▶ 놀이기구(Ride Attraction) 공사 ▶ 테마(Theming) 공사 ▶ 일반 건물 공사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놀이 기구 대부분은 프랑스·이탈리아·태국·캐나다·독일 등 해외 업체가 위치해 있어, 약 9개월간 현장 사무실에 제작한 후 현장에 서 조립했다. 이 과정

에서 해외 업체와 설계·제작·운반·설치 감독 등을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현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놀이기구의 안전성과 품질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e일과 콘퍼런스 홀 등을 통해 수시로 제작업체와 소통했다. 또한 발주처와 품질파트, CM(Construction Manager)사는 놀이기구 제작 중 및 완료 후 각 1회씩 현지에서 방문해 놀이기구의 품질을 꼼꼼하게 체크했다.

태풍 피해와 난관에도 돌출 동체 대처, 안전 관리도 1등

제주신화테마파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K팝 한류를 양산해 내는 YG엔터

가 터진 데다, 타운 내 불링클립과 GD카페 두 건물은 모두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비정형 건축물도 건물 디자인이 교체돼 도면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현장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돌관공사에 돌입해 골조공사 이후부터 마감까지 전 과정을 5개월 만에 완료했다. 크기 않은 부지에서 건축과 조경, 유인워터파크 등 여러 공종 작업이 동시에 이뤄졌지만 작업 구간을 나누고 업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목표를 달성했다. 가장 큰 위기는 지난해 10월 제주를

태풍 '차바'로 인한 막심한 피해였다. 골조공사 중에 철근과 거푸집, 비계 등 다수의 구조물이 손상됐다. 현장은 최대한의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손상된 골조를 철거하고 재시공했다. 전직원이 뿔뿔 찢어 힘을 합친 덕분에 3주 만에 예상했던 복구 기간을 열흘로 단축했고, 그 결과 계획했던 대로 9월 31일에 임시사용 승인을 획득할 수 있었다.

제주의 신비로운 신화를 담은 우리 회사 첫 테마파크 현장 세계적 파트너와 손잡고 역작 탄생시키다

테마 공사, 즉 'Theming'은 말 그대로 테마파크 내 구조물 및 일반 건물의 콘셉트와 디자인을 정하고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일반 건축 현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경이다. 주요 테마인 '신화'를 투바엔 캐릭터로 구현한 구조물들은 국내 공장에서 제작해 제주도로 공수하고 현장에서 설치했다. 테마 공사 디자인 감독에는 디즈니랜드 테마파크에 몸담았던 25년 경력의 미국인 아티 디렉터가 참여, 약 9개월간 현장 사무실에 상주하며 발주처와의 업무 조율에도 큰 역할을 했다. 색감과 디자인적 요소가

워키는 안전 관리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안전 관리 조직 및 건설업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관리한 결과 무재해 500일 이상(1배), 200만 시간(2배) 달성에서 성공했다. 각종 변수와 난제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1년여를 달려온 제주신화테마파크 현장. 10월 말 현재는 모든 공정을 완료하고 마무리 작업 중이며 추가 프로젝트인 워터파크 공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회사의 손길이 곳곳에 닿은 제주신화월드 제주 관광의 새로운 메카로 승승장구할 날이 머지않았다.

INTERVIEW

“성공적인 테마파크 준공의 기세를 이어, 워터파크 공사까지 파이팅!”

친감과 지육을 오가는 돌발 상황에서도 배려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제주신화테마파크 현장 직원들. 성공적인 테마파크 공사 경험을 되새겨 워터파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직원들을 만났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겪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성민석 사원(이하 성사원) 현장에서 토목 공구를 담당했는데, 짧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다 보니 여러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느라 흡사 전쟁 같았습다. 서로 일을 먼저 하기 위해 공경 간 약간의 충돌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하 구조물 공사 업체 선정이 다소 늦어지고 인원 투입이 힘든 상황에서 제가 담당하던 토목 공경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소장님까지 업체 대표님과 대화하며 작업을 돌려했고, 업체 경영진은 현장에서 직접 측량과 10t 롤러 운전에 나서며 작업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회사로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주도라는 도서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또 기상 영향을 많이 받아 공사 착수 직전 재사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발주처에도 테마파크 프로젝트는 처음이라 조정 부분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현장의 컨디션도, 제주 식생도 평범하지 않아 여러 가지

를 고려해야 했는데, 특히 가장 처음 식재가 이뤄진 라바 미니트레인 구간 에 어떤 수종과 수형을 적용할지 정하고 수목을 찾기 위해 검수를 다녔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홍승모 부장대우(이하 홍부대) 제주신화월드에서 가장 먼저 수주를 따낸 시 설은 신화역사공원 R지구 콘도와 빌라입니다. 성공적인 공사 수행 모습을 본 발주처가 “역시 현대건설”이라며 우리 회사의 재력을 믿고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맡긴 것이죠. 그때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공사 착수 후부터는 돌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놀이기구를 현장에서 조립하고, 테마파크 외장공사를 설계·시공하는 작업들이 우리 회사로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주도라는 도서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또 기상 영향을 많이 받아 공사 착수 직전 재사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발주처에도 테마파크 프로젝트는 처음이라 조정 부분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현장의 컨디션도, 제주 식생도 평범하지 않아 여러 가지

회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자랑하고 싶은 무리 현장만의 장점, 또는 가장 잘된 일은 무엇이었나요?

안대철 부장대우(이하 안부대) 공사 후반에 YG Town이 들어서기로 결정되면서 내외장 마감에 대한 대대적인 설계 변경이 진행됐습니다. 발주처에서 는 사업 전반의 운영과 연계해 준공일을 못 박고 공기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의 돌관공사가 그러하듯 미흡한 도면과 다양한 공경

성민석 사원, 안대철 부장대우, 이철호 현장소장, 홍승모 부장대우, 장준호 과장(왼쪽부터).



의 동시다발적 공사로 현장과 지육을 오가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 지역의 골조·토공 및 번식 있었습니다. 조경 등 협력사와 상

준공이 된 지금 돌이켜 보면 파노라마처럼 많은 장면이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준 협력사와 동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철호 현장소장(이하 현장소장) 직원들에게 현장 정리·정돈과 청소는 무척 강조했습니다. 수시로 환경 점검의 날을 진행해 직원 전체가 집게와 마대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자재가 조금만 비뚤게 놓여 있어도 정비를 투입해 정리·정돈하기를 요구했죠. 결과적으로 안전성 확보 및 공기 단축의 효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 요구에 직원들이 잘 따라주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을 때에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감 또는 지금까지 함께 고생한 현장 동료와 선우배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성 사원 좋은 소장님과 팀장님, 현장분들을 만나 도움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을 때에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홍부대 목지에 있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해외 현장인 듯한 국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신 선우배님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1년 반 동안 바라만 보아도 안될 만큼, 주말에 한번 같이 올라가시죠(웃음)!

허영만은 한국 만화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장이다. '선생님'과 '화백' 호칭을 들으면서 편하게 다닐 법도 하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들었다고 연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단단하다. 촬영 장소에서 재킷을 벗자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의 몸이 나왔고, 가방에서는 37권째 그리고 있는 『허영만의 만화일기』 공책이 나왔다. 머릿속에서는 금방이라도 다음 작품의 아이디어가 나올 듯했다. 글=정희정 <채널에스> 기자 / 사진=김정환(PROJECT 100Studio)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43
2017/10/30/Monday

오래, 잘, 재밌게 그리는 허영만

『허영만의 만화일기』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허영만 화백은 앞으로 주식 관련 만화를 연재할 예정이라고 깜짝 선언을 했다. 그것도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자신의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과정을 그리는 만화다. 마침내 지난 7월 31일, 그는 기발한 구성의 <허영만의 3천만원>을 웹진으로 처음 선보였다. 이 작품은 '생활 톨'보다는 '생활 밀착형 실시간 경제 교양 만화'라고 이름 붙여야 할 듯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요즘 산 주식 종목과 시장 전망에 대해 털어놓았다. 독자와 좋은 정보 하나라도 더 나누고 싶다는 욕심이 보였다. '돈은 곧 탐욕'이라는 말과 달리 새로 연재를 시작한 <허영만의 3천만원>을 읽는 독자들은 돈의 유용함과 바람직한 경제관념에 대해 생각해볼게 될 것이다.

잘 알고 덤벼라, 3000만원으로 시작하는 주식투자

Q 시장질서 교란 행위 금지법 등 여러 법률을 검토해보셨다고 들었어요.
잘못하면 잡혀가요. 자문단을 구성해 거의 실시간으로 주식 시장을 중계하려고 했더니 위험하다는 거예요. 주가 조작으로 비취질 수도 있고 어떤 독자들은 휩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올 초까

지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스토리 만화와는 전혀 다른 만화를 그리려고 했어요. 주식과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만화를 안 놓을 것 같았거든요.

Q 실제로 돈을 잃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시작할 때는 시장이 좋았는데, 바로 북핵 위기설이 터지고 하필 안 좋을 때 독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돈이 불어나는 걸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Q 부자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작품을 쓴 목적이 있나요?

'잘 알고 덤벼라. 모르면 깨진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아파트 살 때는 직접 가보잖아요. 위치나 주변 시설 다 고려하잖아요? 왜 주식을 공부하지 않고 무작정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느냐 이거죠. 주식을 사려면 그 회사 자본금이 얼마고 전망과 오너의 자질은 어떤지를 공부하라 이거예요. 완전한 가치 투자를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진짜 알았던 사람들은 그 시스템을 알아 오는데,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늦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Q '젊은 세대들이 나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해야겠다'는 말이 나와요.

옛날에는 정기 적금을 3년 넣으면 두 배가 됐어요. 요즘은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졌죠. 은행에 무턱대고 저금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식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잔소리를 하게 돼요. 나중에 슬퍼지거든요. 초기 투자금 3000만원이 늘어나고 줄어들기도 하다가 5000만원이 되고 1억원이 되면 그때쯤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관심을 두다 보면 일반 사람들의 경제관념도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거고요. 재밌게 스톡 만화를 읽으면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은연중에 알게 되면 좋잖아요.

Q 자문단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주식을 사는 내용으로 구성했어요. 왜 이 종목을 사고파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했지만 설명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또 매매하는 내용만 나오면 독자들이 재미없겠죠. 그래서 앞에는 이야기를 풀어놓고 뒤에는 매매하는 걸 직접 보여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려고 해요.

Q 재미와 의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쉽지 않는데요.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보면 가는 길에 노루를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웃음).



나름의 만화세계를 만든다

Q 종이만화를 그리다가 태블릿으로 옮기면서 고생하시는 내용을 봤어요.

이제는 태블릿을 많이 쓰긴 하는데 종이처럼 섬세하지 않아서 불편해요. 터치감이 아주 안 좋아요.

Q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나요? 될 수 있는 대로 시대를 앞서가려고 하는데, 역시나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자주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앞서 나가는 게 내가 바라는 방향이 아닌 것 같으면 거기로 갈 필요가 없어요. 난 나 나름대로 세계를 또 만들어야죠. 쫓아가지 않아도 재미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Q 하지만 역시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힘들죠.

요새는 영화화되고 드라마화되고, 돈벌이가 되는 만화만 있는 것 같아요. 아동 만화, 영화화될 만화 아니면 야한 만화만 나오잖아요. 그런 걸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오갈 데가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버리죠. 아슬하고 술 마시면서 '이제는 그만하라는 분위기가' 하고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아들도 그만하면 됐다고, 쉬라고 하고요.

Q 그만두겠다고 하면서도 새 작품을 가지고 나오세요.

썬다는 의미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의미와 같다면 그것 또한 서글퍼요. 사실이 만화는 독자 반응이 좋아야 해요. '봐라, 영화화되지 않아도 반응이 나오지 않냐'고 큰소리를 쳐야 하거든요.

Q 이미 영화화, 드라마화된 작품이 많아요. '타짜' '비트' '식객' 등 찾아보니 총 23편이더라고요. 작품이 손을 떠나면 서마음에 안 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좋았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수십, 수백 명이 최선을 다해 만든 작품이고, 이미 내 손을 떠난 작품들이에요. 그러니 뒷산에서 시집간 딸 집 보면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나 안 나나 쳐다보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야죠. 그걸로 됐어요.

오래 하면서 잘해야죠

Q 만화를 그리면서 창작의 기쁨이나 의의를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의의라기보다는 그냥 습관이죠. 그런데 남들이 못 하는 재주가 있고, 그걸 보여주면 옆에서 즐거워하는 게 너무 좋아요.

Q 스스로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나요?

나라고 놀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독자들이 있잖아요. 창작하는 사람의 의무라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Q 후배들을 위해서 충분한 원고료를 받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말씀은

하신 적 있어요.

내가 최대한 많이 받아내야지 후배들도 그만큼 따라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골프나 미식축구도 누가 얼마 받고 계약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두잖아. 만화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대중의 만화를 보는 눈이 높아지는 건 시간이 걸려요. 돈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면 금방 시상이 달라지죠. 다만 광고가 많이 붙는 게 좋은 작품은 분명히 아닌데, 만화의 가치가 수익을 많이 챙기는 쪽으로 달라질까 봐 걱정은 돼요.

Q 오래 하는 게 재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래 하면서 잘해야죠. 회사에서도 좌천돼서 부서도 없이 책상 하나 가지고 근근이 오래 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맞는 역할 충분히 하면서 오래 하는 게 좋잖아요. 만화기도 작품을 냈을 때 사람들이 잊지 않고 관심을 보여야 오래 해도 보람이 있죠.

Q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만화가 저금 문화로 취급당하던 1960, 1970년대가 제일 힘들었어요. 직업이 뭐냐는 질문에 만화 그린다고 선뜻 이야기를 못 했어요. 5월만 되면 대본소에서 만화를 무작위로 걷어 가서 성인 비디오파 같이 불태웠어요. 어린이에게 안 좋은 거라 이거지. 적어도 이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으니까. 돈도 되면서 좋은 만화를 그리는 작가를 많이 만들어내야 해요.

Q 시작하는 작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책상에서 승부가 납니다. 끈질기게, 꾸준히 책상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해요. 내실이 중요해요. 친구들이 먼저 데뷔해 100m 앞서 가 있다고 유리한 거 아니에요. 데뷔하기 전까지가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데뷔하고 나서는 충전보다 방전이 많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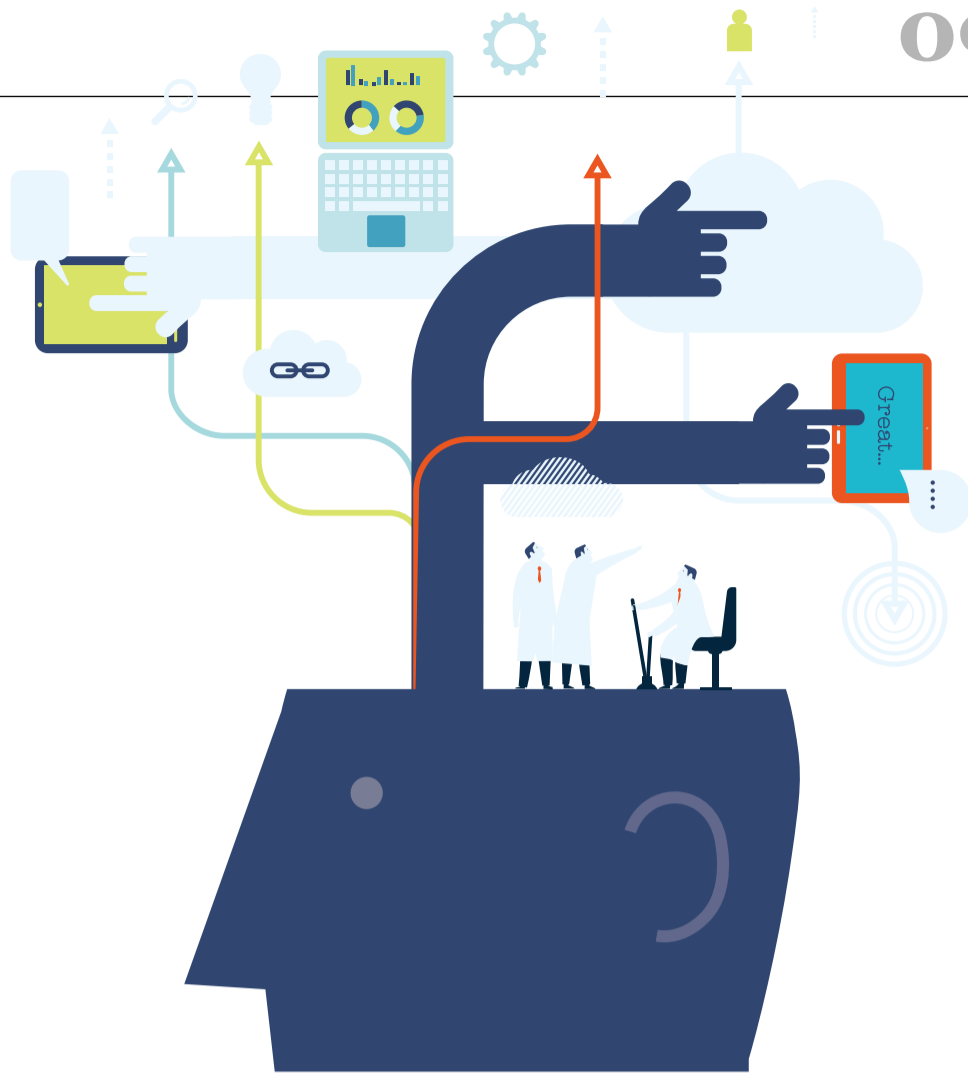
Q 요새는 어떤 일이가장 즐겁나요?

수시로 바뀌는데, 어제도 즐거웠고 오늘도 즐겁고 내일도 즐거울 거라 생각하려고 애써요. 주변에서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기분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죠. 그러면 화실로 출근하는 차 안에서 혼자 크게 웃어요. 기분이 훨씬 나아지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니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즐거운 일은 맛있는 술자리죠. 많이 마시고 취할 나이는 아니에요. 그럴 때는 지났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다음 끼니 먹을 때까지 입에 계속 남아 있어요. 모처럼 그런 음식을 만났다고 하면 아주 기분이 좋죠.

필자는 상상하는 필자의 초록 모습

허영만 선생이 자필로 쓴 글입니다. 허영만 (1977년) 이후는 허영만 없이는 코믹 만화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 허영만의 만화 읽는 재미를 만끽하는 것은 인생의 큰 즐거움입니다. 허영만의 만화 읽는 재미를 만끽하는 것은 인생의 큰 즐거움입니다.





왜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한가

어딜 가나 '4차 산업혁명' 이야기다. 1차 산업혁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2차, 3차 혁명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3차 산업혁명, 즉 정보화 혁명도 아직 한창인 거 같은데 벌써 4차 산업혁명이라니.

4차 산업혁명의 전도사들에 따르면 세상은 인공지능(AI)이 지배하고 모든 사물이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된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빅데이터로 분석돼 미래를 예측하는 데 쓰이고, 웬만한 물건은 3D 프린터가 만들고, 인간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산다.

하도 4차 산업혁명을 떠들다 보니 부정적인 목소리도 간혹 나온다. "독일이 인더스트리4.0 정책을 시작한 게 처음인데 정확한 의미는 공장 자동화다. 그런데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외국에선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다" "세계경제포럼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바프가 내놓은 책 『4차 산업혁명의 교과서』에

한국인 전체가 속고 있다"는 비판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대세는 여전히 4차 산업혁명이다.

인류의 성장은 끝났는가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정확한 실체는 혼란스럽다는 말이 맞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 혁명이나, 증기기관이 상징하는 1차 산업혁명은 누가 봐도 명확하다. 누구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의 실체가 뚜렷하지 않다는 말이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현재의 4차 산업혁명을 정보화 혁명의 연장선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4차 산업혁명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 또는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 꼭 필요하다. 성장의 정체, 일자리의 감소 때문이다.

미국 노스웨스턴대의 로버트 고든 교수는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라는 도

발적인 책에서 "미국의 성장은 끝났다"고 단언한다. 고든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면 미국의 성장, 특히 1920~70년의 엄청난 성장은 전기와 내연기관으로 대표되는 2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이었다. 무려 50년이나 계속됐다. 그러나 3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폭발적인 성장은 1990년대 중반에서 2003년까지 겨우 10년에 불과했다. 그리고 다시 성장이 정체하고 있다. 시간대만 바꾸면 한국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사물인터넷 등에서 4차 산업혁명을 끌어낸 것은 이런 첨단 기술이 다시금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주었으면 하는 기대 때문이다. 즉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꼭 필요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면 세계 전체가 저성장과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주자들이 과연 2차나 3차 산업혁명의 대표주자만큼 우리 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꿀지 의문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각해 보자.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기면 분명 편리해질겠지만,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었던 것만큼 혁신적인 변화가 과연 일어날까. 인공지능 에어컨은 분명 전기를 아끼고 더 쾌적한 집을 만들겠지만, 부채에서 에어컨으로 이동했던 변화만큼의 충격을 줄 것인가. AI가 인간 의사보다 암을 더 잘 찾아낸다고 해도 평균수명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의문이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

4차 산업혁명이 정말로 성공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겨우 정보화 혁명의 절반

인 5년에 그친다면, 그때 가서 인류는 어떻게 해야 할까. 5차 산업혁명, 6차 산업혁명을 불러내야 할까. 더 이상 몇 차 산업혁명이라는 구호가 통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내세워야 인류는 희망을 갖게 될까.

어쩌면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일지도 모른다. AI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미래가 '일자리의 감소'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어차피 예정된 미래라면 일은 이제 AI와 로봇에게 맡기고 인류는 그동안 꿈꿔왔던 즐겁고 창의적인 일에 매달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때쯤 되면 보편적인 기본소득제가 시행돼 일해야 먹고산다는 생각 자체가 부인될 지 모른다.

그래도 세상일은 모른다. 새 아파트도 이제 비슷비슷하구나 하고 느끼기가 무섭게 최근 일급 건설사들이 최근 내놓은 아파트 단지는 호텔보다 더 화려해졌다. 아파트 단지에 오페라하우스와 워터파크가 들어서고 공중에 수영장이 생겼다. 많은 과학자가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세상의 모든 비밀이 거의 다 풀렸다"고 생각했지만 비밀은 여전히 쌓여 있다.

우리는 저성장이라는 고민을 해결하고 싶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답을 역으로 만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짜 답이 될지, 가짜 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인류는 여전히 길을 찾을 것이다. 예전에 그랬었던 것처럼 말이다.

김상연

과학칼럼니스트



※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뚜렷한 실체가 없는 '4차 산업혁명' 저성장과 침체를 이겨낼 열쇠일까? 인류에게 필요한 건 사고의 전환... 결국 답 찾게 될 것

똑똑한 회사생활 Tip

최고들이 말하는 '일머리 법칙'

학창 시절 공부는 잘했는데, 왜 일은 그만큼 잘하지 못했을까? 바로 '일머리'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업무 습관들을 소개한다.

매일은 빠리, 문장은 간결하게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단연 빠른 메일 회신이다. 만일 바빠서 즉시 답을 하지 못할 때도 언제쯤 답장을 줄 수 있는지 신속하게 알려준다. 보고서 역시 짧고 간결하다. 문장에서 쓸데없는 수식어는 빼어내고 글의 분량을 절반으로 줄여보자.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와 그림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가장 싫은 일부터, 마감은 하루 당겨서
최고들은 편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지녔다. 업무의 마감 기한, 중요도를 따져 To do List를 작성하고, 그중 가장 하기 싫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자. 또한 마감을 철저히 지킨다. 적어도 하루 전에 일을 마무리한다

는 마음을 가지면 마감은 반드시 지게 된다.

할 일만 목록화해? No, 업무 공유해야

내 할 일만 목록화해 하는 사람이 있다. 자연스럽게 그 공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묻히는 경우도 허다하다. 만일 상사가 "요즘 일은 잘 되고 있지?"라고 묻는다면 30초 이내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정리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업무는 공개돼야 한다. 타인에게 내 일을 알리면 도움을 받거나 인정받을 기회도 그만큼 많아진다.

정보 수집은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안에서 보내는 자투리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말자. 내 업무 분야, 윗사람이 관심 가질 만한 뉴스거리들을 모으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오늘 하루 내 비장의 무기가 될지도 모른다.

참고서적=김무귀 저, 『최고들의 일머리 법칙』

그룹웨어 돋보기

우리 회사 IT 관련 질문? IT Contact Point에서 하자!

"갑자기 OO시스템이 안 되는데 어디로 연락해야 하지?"와 같은 생각, 한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임직원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6일 IT Contact Point가 오픈했다. IT와 관련한 우리 회사의 모든 시스템에 대해 질문할 수 있으며 관련 담당자도 쉽게 찾을 수 있다.

Step 1 접속하기 IT Contact Point에 접속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대표적인 방법은 그룹웨어 메인 화면을 통하는 것. 그룹웨어 맨 우측 상단에 있는 [IT CONTACT POINT]를 누르면 간단히 접속할 수 있다. 총무지원 시스템 등 주요 업무 시스템 내 [IT Q&A] 버튼을 통해서도 연결되니 참고하자.

Step 2 질문하기 시스템 오류 신고, 개선 제안 등을 하고 싶다면 'IT Q&A'를 이용해보자. 한국과 시차가 큰 해외 현장에서 이용하면 특히 더 좋은 기능으로 질문을 등록하면 각 시스템 담당자가 1~2일 내 답변을 해준다. 담당자에게 바로 문의하고 싶다면 'Contact Point'를 확인하자. IT지원실 담당자와 오토메버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까지 모두 나와 있다.

Step 3 확인하기 사업수행·기술지원·업무지원에 필요한 시스템은 'System Ma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수주부터 준공 후 유지·보수까지, 현장에 필요한 IT 지원 절차와 지침은 'IT Support Procedure'에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외국인 직원의 경우 글로벌 그룹웨어에서 [IT CONTACT POINT]를 통해 Q&A를 남길 수 있으니 참고하자.



올해 117회를 맞이한 노벨상은 이유 있는 이변의 연속이었다. 지난 10월 9일 노벨경제학상을 마지막으로 수상자를 모두 발표한 노벨상에는 총 6개 부문, 한 개의 연합체와 11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반핵단체, 중력파 검출 연구진 등 2017년 노벨상 수상자와 주요 작품들을 살펴본다. 글=임인영 <인터파크도서 북DB> 기자/사진=중앙일보·시공사·리더스북 제공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43
2017/10/30/Monday

‘이유 있는 이변’ ... 2017년 노벨상 수상자들은 누구?



노벨생리의학상 제프리 C 홀(미국), 마이클 로스배시(미국), 마이클 영(미국)



노벨물리학상 킴슨(미국), 라이너 바이스(독일), 배리 배리시(미국)



노벨화학상 자크 뒤보세(스위스), 요아힘 프랑크(독일), 리처드 헨더슨(영국)



노벨문학상 가즈오 이시구로(영국)



노벨평화상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노벨경제학상 리처드 탈러(미국)

노벨생리의학상 제프리 C 홀, 마이클 로스배시, 마이클 영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미국의 제프리 C 홀 메인대 교수, 마이클 로스배시 브랜디스대 교수와 마이클 영 록펠러대 교수가 공동 선정됐다. 세 수상자는 초파리 연구 등을 통해 생체시계를 통제하는 유전자 수준의 분자 메커니즘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초파리의 주야간 활동성을 근거로 생체리듬을 측정, 리듬을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를 변형시켰을 때 생체주기에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은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체시계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연구가 생체시계가 행동, 호르몬 수치, 수면 주기, 혈압-체온 및 신진대사와 같은 중요 기능을 조절한다는 사실이 정밀하게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 수상자의 중대한 발견 이후 일주기 생물학은 우리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주는 광범위하고 역동적인 연구 분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노벨물리학상 킴슨, 라이너 바이스, 배리 배리시

노벨물리학상에는 미국 ‘라이고(LIGO)’팀의 과학자인 킴슨, 라이너 바이스, 배리 배리시가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 주장했던 중력파의 존재를 직접 검출·확인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중력파 연구는 우주에서 가장 강렬한 사건을 관찰하고 인간 지식의 한계를 시험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킴슨 교수는 ‘라이고 연구’를 통한 중력파 검출로 ‘제2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카블리상’을 수상하며 일찌감치 노벨물리학상의 강력 후보로 거

론돼 온 인물이다. 2014년 개봉한 영화 ‘인터스텔라’의 과학 자문위원 및 총괄 제작자로 참여하며 과학 대중화에 누구보다 앞장선 천체물리학자로도 알려져 있다. 전 세계 10개 언어로 번역되어 ‘물리학의 바이블’로 불리는 킴슨 교수의 책 『블랙홀과 시간여행』에는 중력파 연구의 시작, 블랙홀, 웜홀, 타임머신에 이르기까지 아인슈타인이 인류에 남긴 유산을 해석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가 담겨 있다.

노벨화학상 자크 뒤보세, 요아힘 프랑크, 리처드 헨더슨

노벨화학상에는 자크 뒤보세 스위스 로잔대 교수, 요아힘 프랑크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리처드 헨더슨 영국 케임브리지대 MRC 분자생물학연구소 교수가 “저온전자현미경 관찰법”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동 선정됐다. “저온전자현미경 관찰법”은 용액 내 생체분자를 고화질로 영상화할 수 있는 것으로, 살아 있는 바이러스와 세포의 분자 구조를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 ‘생화학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기존에는 생체분자의 이미지 생성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저온전자현미경 개발 이후 보지 못했던 과정을 시각화할 수 있게 됐으며, 저온전자현미경 관찰법을 통해서 용액 내 생체분자를 영상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저온전자현미경이 생체분자 이미지 영상화를 개선했고, 이 기술이 생화학을 신기원으로 이끌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신약 개발과 신체 화학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노벨문학상 가즈오 이시구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일본계 영국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가 선정됐다. 지난해 미국의 팝 가수 밥 딜런을 수상자로 선

‘공동수상’만 세 부문, 모두 남성 미국 대학교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12월 10일 시상식... 상금 ‘12억7000만원’

정하며 파격적 행보를 선보였던 노벨문학상 부문에는 일찌감치 차기 수상자에 대한 이목이 집중됐다. 가즈오 이시구로는 1954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나 해양학자인 아버지를 따라 다섯 살이 되던 해 영국으로 이주했다. 1983년 발표한 첫 소설 『창백한 언덕 풍경』으로 ‘영국 최고의 젊은 작가들 20인’에 선정됐으며, 1989년 발표한 『남아 있는 나날』로 같은 해 부커상(현재 맨부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10년 만에 출간한 일곱 번째 장편소설 『파문인 거인』을 발표했다. 이 작품은 망각의 안개가 내린 고대 잉글랜드의 평원을 무대로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나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리처드 탈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넛지(Nudge)』의 저자로 유명한 행동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선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리처드 탈러 교수에 대해 “인간의 의사결정을 새롭게 분석하는 지평선을 열었다”라며 “새로운 실험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파악한 ‘행동심리학의 선구자’라고 소개했다. 리처드 탈러 교수의 저서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넛지』에는 부드러운 권유와 개입이 인간의 선택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증명하고 있으며, 사소한 요소들의 변화로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넛지』 이후 7년 만에 발표

한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에서는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이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137가지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대해 행동 경제학을 통한 해법을 제시한다.

노벨평화상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이 선정됐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은 지구상의 모든 핵무기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국제 비정부기구(NGO) 연합체로 2007년 제네바에서 발족돼 101개 국가에 468개의 협력단체가 있다. 지난 7월 ‘유엔 핵무기 금지 협약’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핵무기 금지 협약’에는 핵무기 개발, 실험, 생산, 제조, 취득, 소유, 비축, 이전, 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도발 위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세계 안보 위기의 목소리가 커지는 시점에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노르웨이 노벨평화상위원회는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재앙적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조약에 근거한 핵무기 금지를 달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인 공로로 상을 수여한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노벨상 이모저모

노벨경제학상은 노벨상이 아니다?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기부 유산을 기금으로 설립된 ‘노벨재단’이 1901년부터 매년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알프레드 노벨은 사망 1년 전 재산을 한남한 후 5개 부문(문학, 화학, 물리학, 생리학 또는 의학, 평화)에 걸쳐 전년도 인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상을 수여하라는 유언장을 남겼다. 그러나 매년 발표되는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앞서 소개된 5개 부문의 수상자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이름이 더해진다. 노벨경제학상은 스웨덴 중앙은행이 1968년 제정한 상으로 노벨상은 아니다. 공식 명칭 역시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한 스웨덴중앙은행 경제과학상’이다. 그러나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른 원칙에 의거해 스웨덴 왕립과학원 선정해 시상한다. 노벨상은 스웨덴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2000~3000명의 후보를 선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후 매년 8월 말까지 후보자 1차 지명 후 10월에 다수결 투표를 통한 수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사망일인 12월 10일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다.

수상 No! 노벨상을 거절한 사람들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였던 밥 딜런은 시상식 직전까지 노벨상 위원회의 연락조차 닿지 않아 수상 거부에 대한 오해를 받기도 했다. 밥 딜런이 수상을 거부했을 경우 그는 노벨상을 거부 혹은 포기한 열두 번째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장 폴 사르트르는 196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이를 자신의 의지로 거부한 첫 번째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수상 거부에 대해 “총동적 제스처가 아니며 작가가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면 작가의 방식으로 ‘글로써’ 행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1973년 아시아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레득트 베트남 총리 역시 “아직 베트남에는 평화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을 거부했다.

요리명장이 다시 돌아왔다! flora(플로라) 이탈리안 레스토랑

삼청동의 분위기 있는 맛집으로 입소문 이 났다가 2016년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던 '플로라' 레스토랑이 심기일전해 다시 문을 열었다. 정독도서관 맞은편 골목의 '안국동 설렁탕' 자리에 터를 잡은 플로라 외관은 1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한옥집의 고풍스러운 운치를 그대로 살렸다. 식당 내부에 들어서자 축하 화환 10여 점이 즐비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9월 시행한 '2017년 대한민국 명장'에 '플로라' 대표인 조우현 오너셰프가 '올해의 요리명장'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다. 고즈넉한 가게 내부의 테이블들은 조우현 셰프가 직접 나무를 주문 제작해 칼로 자르고 못질을 해 만든 핸드메이드 작품이다.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진 오너셰프가 요리하는 음식점인 만큼 김치부추피자, 김치누룻지 파스타, 오이스터크림파스타 등 세가지 메뉴는 독특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특허까지 받았다. 김치누룻지 파스타는 토마토 베이스의 국물에 모시조개·홍합·새우 등이 풍부하게 들어간 해산물과 구수한 누룻지가 푹배기 그릇에 담겨 나온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재료들이 절묘한 조화를 이뤄 전혀 느끼하지 않고, 부드럽고 고소하다. '플로라'에서 내놓는 모든 화덕피자의 도우 안에는 '산나물의 왕'이라 불리는 취나물을 갈아 넣어 영양과 담백한 맛을 동시에 갖췄다. 정크푸드가 아닌 슬로푸드를 지향해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든다는 조셰프의 신념이 담겨 있다.

'플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꽃요리를 선보인다. 하얀 도우 위에 색깔의 꽃잎들이 소복하게 쌓인 '꽃피자'가 단연 유명인데, 갓 구워낸 화덕피자 위에 신선한 루콜라와 팬지, 금어초, 미니장미 등 식용 꽃들이 맛과 향을 더한다.

인정받는 셰프가 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깨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조우현 셰프는 요즘에도 이탈리아 요리와 한식을 접목한 '도가니파스타' 등 기발한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한다. "부지런함, 정직함, 도전"을 가진 사람은 어느 조직에 가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철칙을 항상 가슴속에 새긴다는 그는 이틀에 한번 새벽 시장을 찾아 해산물·야채 등 식재료의 장을 직접 본다. 이전의 플로라보다 음식의 맛과 양은 동일하지만 가격은 20~30% 낮춰 요리명장이 제공하는 품격 있는 식사를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즐길 수 있다. 테이블은 50좌석.

글=김승희 / 사진=이슬기

- 1 고풍스러운 운치를 자랑하는 플로라 내부 전경.
- 2 100년 된 한옥 건물인 플로라 외관. 3 김치누룻지파스타. 4 꽃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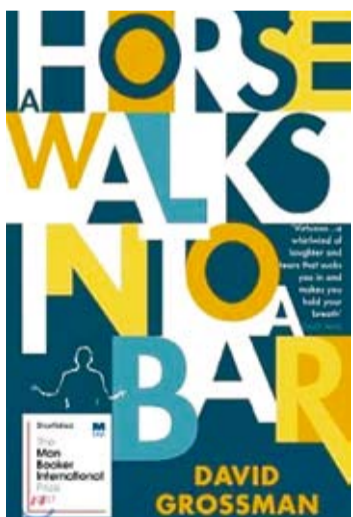
flora(플로라)
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3길 74-6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10시
문의 02-725-7355

현대건설 임직원을 위한
special event
현대건설 사원증을 제시하면
그린 샐러드 제공 (테이블당)
2017년 11월 30일까지

문화책갈피

세계 최고 권위의 문학상이 노벨문학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노벨문학상에 비견할 만한 영향력 있는 국제 문학상이 여럿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수상해 널리 알려진 맨부커상부터 풀리처상, 나오키상, 카프카상 등 저명한 글로벌 문학상의 올해 수상작을 소개한다.

2017년을 빛낸 국제 문학상 수상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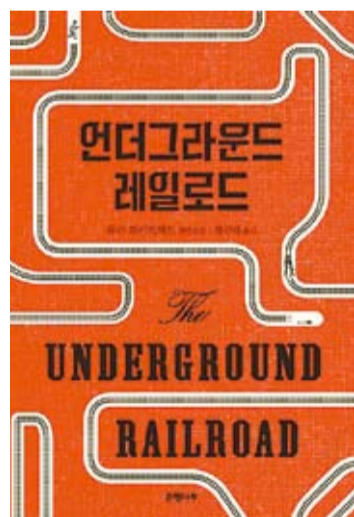


영국 맨부커상 수상작

『술집에 걸어 들어온 말』
다비드 그로스만

올해의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자로 이스라엘 소설가 다비드 그로스만의 최신작 『술집에 걸어 들어온 말(A Horse Walks Into a Bar)』이 선정됐다. 지난해 수상작은 국내 소설가 한강이 쓰고 데버러 스미스가 번역한 『채식주의자(The Vegetarian)』였다.

만담 형식의 코미디를 대중이 외면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은 희극배우가 마지막 공연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미국 풀리처상 수상작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콜슨 화이트헤드

올해 풀리처상 수상작은 미국 작가 콜슨 화이트헤드의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Underground Railroad)』이다. 19세기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노예 소녀 코라와 그를 추격하는 노예 사냥꾼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노예제도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며 휴가 때 읽은 책으로 소개했다.



체코 카프카상 수상작

『눈 먼 암살자』
마거릿 애트우드

캐나다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로 꼽히는 애트우드는 『눈 먼 암살자』로 2000년 부커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카프카상을 받았다.

『눈 먼 암살자』는 2000년 출간 당시 "새로운 세기에 나온 첫 번째 위대한 소설"로 평가되며 '타임'지가 선정한 '현대 100대 영문 소설'에도 이름을 올렸다. 현재의 시점에서 20세기 전체를 역으로 훑으며 풀어내는 액자 구성의 소설이다.



일본 나오키상 수상작

『꿀벌과 천둥』
온다 리쿠

『꿀벌과 천둥』은 2017년 제14회 서점대상과 제156회 나오키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역사적인 기록과 함께 온다 리쿠에게 사상 첫 서점대상 2회 수상의 영예를 안긴 책이다. 첫 구상으로부터 12년, 취재 기간 11년, 집필 기간 7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써 내려간 작품이다. 일본에서 실제로 3년마다 열리고 있는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무대로 인간의 재능과 운명, 음악의 세계를 아름답게 그려낸 소설이다.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Picture Description 유형
Please describe the picture below.



A young man is playing the electric violin in the square. Many people are sitting near him and watching him play. He seems to be a very good street performer. He is wearing a dark blue hat and a jacket. He also has sneakers and glasses on. There is a speaker sitting behind him and connected into his violin. The case of violin is opened in front of him. It is hard to see what is inside.

Opinion Question 유형
These days many people are raising all kinds of pets in apartments. Pets are considered members of the family as they give humans great joy and comfort. However some people don't like if the pets are raised in their apartments. Should pets be allowed in apartments? Do you agree or disagree?

I think that animals should be allowed in apartments because they can help people with loneliness and they can have more people want to live in apartments because it's cheaper and they can bring their beloved pets with them. Although animals can be messy or disruptive to the building, I believe that they will clean it up, it's their living space, why would they want it to reek of pee and be disgusting and dirty.

자료 제공 SLI 교육원(02-541-7219)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예술적 상상력과 플라스틱의 무한한 가능성이 만나 탄생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PLASTIC FANTASTIC: 상상 사용법>展은 20세기 '기적의 소재'로 불리는 플라스틱의 예술적 진화를 보여준다.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43
2017/10/30/Monday



1 Molding New Living, 2017
2 Molding New Living, 2017
3 Design Becomes Everyday Landscape, 2017
4 When Designers Dream, 2017
5 Molding New Living, 2017
[출처: courtesy of D MUSEUM]

디자이너의 감성으로 재탄생한 플라스틱의 예술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을 예술화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PLASTIC FANTASTIC: 상상 사용법>展은 40여 명의 세계적인 크리에이터가 플라스틱으로 탄생시킨 2700여 점의 제품·가구·조명·그래픽·사진 등을 총망라한다.

전시는 총 6개 섹션으로 나뉜다. 미술관 입구에서 전시장까지 이어지는 '폴리머 꿈꾸다'에는 플라스틱이 형태와 색을 갖기 이전 단계의 순수한 성질과 형태를 상징적으로 사용한 설치 작품을 전시한다. 이어 ▶컬러로 물들이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다 ▶디자인, 풍경이 되다 ▶마스터 디자이너, 일상으로 들어오다 ▶또 다른 세상을 꿈꾸다까지 플라스틱으로 탄생시킨 예술 작품과 제품들이 각 섹션에 맞춰 두루 소개된다.

플라스틱의 어원에는 '빛어서 만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예술가의 특별한 감성으로 재탄생한 플라스틱 작품들은 상상력과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우리 회사 사우들에게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갈 것이다.

PLASTIC FANTASTIC

~2018.3.4

PLASTIC FANTASTIC: 상상 사용법

전시장소 디뮤지엄
주소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29길 5-6
문의 070-5097-0020

